

唐代에 있어서 徐州 武寧軍의 역할 및 張保臯에 대한 영향

李 銀 德*

The Rolls of Wuningjun, Xizhou of Tang Dynasty and Influence to Chang Pogo

Li, Yin-De

- | | |
|----------------------|---|
| 〈목 | 차〉 |
| 一. 무녕군의 지리위치상 중요한 요소 | 二. 장보고의 서주에서의 경력이 從軍으로 부터 貿易에로의 전환에 미친 영향 |

徐州를 옛적에는 彭城(팽성)이라 하였는데, 夏나라와 商나라 때에는 大彭氏國이었다. 春秋시기에는 宋나라의 彭城邑이었고, 戰國시기에는 楚나라에 속하였으며, 秦나라 때에는 여기에 彭城縣을 세웠다. 楚나라 王 孫心이 都邑을 옮긴 후, 項羽가 여기에 도읍을 세우고 “西楚”라 하였다. 西漢 때에는 이 곳을 楚國이라고 하였고, 東漢시기에는 彭城國이라고 하였다. 三國 시기의 魏나라 때부터 徐州라하여 이곳을 다스렸는데 東晉 때에는 國을 郡으로 바꾸었다. 南北朝시기에는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나라에 속하며, 소속이 계속 변하였다. 수나라 때에는 彭城郡을 두어 다스렸다. 武德 4년에 徐州라 하였고¹⁾, 傘下에 彭城, 蕭(소), 豐(풍), 沛(패), 騰(등), 宿遷(숙천), 下邳(하비) 등 7개의 縣을 두었다. 貞觀 중엽에 이르러 다시 谷陽, 蕪隸(짐예)에 속하게 되었다. 高宗 隆慶 초기에 谷陽을 蕪에 편입시키고, 憲宗 元和(년)후에 蕪을

宿州에 예속되었다.²⁾

고조 武德 4년에 서주 總管府를 설치하였고, 7년에는 다시 총관부를 都督府(도독부)로 고쳤다. 天寶 원년에는 彭城郡으로 하였다가 乾元 元년에 徐州로 다시 바꾸었는데 그 후 建中 3년까지 서주는 선후하여 河南道, 하남절도사, 汴州都防禦使(변주도방어사), 淮西(회서)절도사, 兗鄆(연운)절도사, 淄青(치청)절도사 등의 治下에 있었는데 그 중 乾元 2년 때에는 하남절도사가 서주를 통제하였다. 建中 3년에는 徐海沂密都團練觀察使(서해기밀도단련관찰사)를 설치하였고, 貞元(정원) 4년에는 徐泗濼(서사호)절도사를 설치하였으며 永貞 원년에는 무녕군절도사를, 咸通(함통) 5년에는 徐泗團練觀察處置使(서사단련관찰처치사), 함통 10년에는 徐泗(서사)절도사, 함통 11년에는 感化軍절도사를 선후하여 설치하였다. 무녕군은 비록 “크면 10여개의 주를 거느리고” “작아도 3, 4개의 주

* 中國 徐州博物館長

이 論文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舊唐書·高祖本記. 郡을 州로 바꾼 것은 武德 元年인데 그때만 하여도 서주는 아직 당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2) 新唐書·地理志

를 산하에 둔”蕃鎮(번진)은 아니었지만 서주의 독특한 지리위치와 전략적인 地位로 인하여 서주는 번진의 할거 局面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一. 무녕군의 지리위치상 중요한 요소

서주는 전국시대 彭城邑(팽성읍)때부터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는데, 그 전략적인 위치는 또한 정치, 경제, 군사, 지리 등 제반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매 시기마다 이러한 제반 요소의 중요성도 변화가 많았는데 당나라 때의 서주가 바로 이러하였다. 당나라 초기에 서주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아니하였으나 “안사의 난” 후에는 서주가 점차 강대한 번진으로 부상하였고, 그 전략적인 지위의 주요한 요소로는 地理, 漕運과 그 지역 사람들의 싸움에 능한 습성등이 있었다.

(一) 특수한 지리환경

서주는 산과 강을 끼고 있어 “산으로 둘러 싸였고 汴河와 泗水가 합류하며 북으로는 산동으로 갈 수 있고, 서로는 梁宋과 통하여 예로부터 요충지였다.”³⁾ 더욱이는 국토가 분열되고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서주는 남쪽 나라에는 병풍으로 되고 북쪽나라에 있어서는 출입의 關門이 되어 서주의 得失은 나라의 興亡盛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서주는 광물자원과 비옥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어 한해 농사를 지으면 몇 년의 糧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로 내려오면서 모두 전략적인 요충지로 각광을 받았다.

劉宋王 玄謨(현모)가 이르기를 “팽성은 水陸 兩路로 통할 수 있고, 그 남쪽에는 회하가 있으며 좌우에는 清河와 汴河가 있고 밀밭이 끝이 없어 변방까지 이른다. 성곽이 견고하고 경비가 삼엄하며 또한 회하의 서쪽과 襄陽의 동쪽까지 6州에 걸친 3천

만호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실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남북조 시기의 진나라 顧野王(고야왕)도 말하기를 “팽성은 지세가 험악하고 견고하여 공격하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으며, 南國의 병풍으로서 兵家가 필히 다투는 곳이었다. 또한 예로부터 동남부를 평정하려면 모두 이곳을 前哨로 하여 상대방을 제압하였다.”

北魏의 서주 刺史 薛虎子(설호자)도 “나라에서 江東(양자강 이남의 동남연해)을 얻으려면 먼저 팽성에 糧穀을 비축하여야 한다. 서주는 옥답이 10여만 헥타나 있고, 灌溉하기가 편리하여 여기에 군사를 주둔하여 진담을 개간하고 양곡을 저장한다면 군사들을 배불리 먹게 하여 병력을 키울 수 있고 사기도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使院新修石幢記』⁴⁾(사원신수석당기)에서도 “지금의 서주는 동쪽 변방을 장악하고 회하와 閩越(북건과 절강)을 통제하며 물산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용맹하며, 하천과 산을 끼고 있어……”라고 하였다.

蘇軾(소동파)의 『徐州上皇帝書』에서 말하기를 “서주는 남북 교통의 요충지이고 京城 동쪽 여러 도읍의 방어선이다. 그 곳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다만 서쪽으로만 수백리의 평야와 이어져 있어 서쪽으로는 梁나라와 宋나라와 통하는데, 楚나라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여 적을 막으면 더없이 적합한 곳이었다. 토지는 비옥하여 농사하기에 적합하며 한해 농사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다. 또한 徐州城은 三面이 하천으로 둘러싸였으며 汴河와 泗水가 흐르고 남쪽만 車馬가 통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서주의 특수한 지리위치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二) 運河漕運의 특수한 요소

584년, 수나라가 廣濟渠(광제거)를 개통하고, 605년에 通濟渠(통제거)와 邢溝(우거), 608년에는 永濟渠(영제거), 610년에는 강남의 운하를 개통한 후에 양자강과 회하 유역의 양곡은 끊임없이 關中(관

3) 蘇軾: 徐州上皇帝書.

4) 元和 12년(817년), 현재 서주박물관 所藏.

중, 장안이 있는 섬서 지역)으로 수송되었다. 「안사의 난」 후에 당나라의 경제 중심은 점차 강남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경제기반도 강남에 의거하게 되었는바, 운하의 漕運은 당나라 朝廷의 생명선으로 되었다.

당나라 중엽, 劉晏(유안)이 鹽鐵轉運使(염철전운사)를 맡았을 때, 재상 元載(원재)에게 편지를 올리기를 “泗水와 汴河를 통하여 서쪽으로 硤石(협석), 少華(소화)를 연결하여 초나라와 월나라의 商船이 곧바로 建章(건장), 長樂(장락)에 이르는데 이는 社稷(사직)을 보존하는 기반입니다.”라고 하였다.⁵⁾

그 시기 양자강과 회하 유역의 물산은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다시 漢水를 따라 北上하거나 또는 淮河에서 潁水(영수)를 타고 襄城(양성)에 이를 수도 있지만 첩첩산중을 지나야 하였고, 수로가 멀어 회하에서 변하로, 다시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편리하지 못하였다. 운하는 당나라에서 강남의 물자를 수송하는 대동맥이었기 때문에 운하 수송선은 당나라에서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하였다. 안록산이 환때 양자강과 회하 유역을 얻으려 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德宗 이후부터는 운하의 수송선을 위협하는 변진세력이 비교적 많았는데, 예컨대 산동의 李泌(이예), 淮西의 李希烈(이희열), 吳元濟(오원제), 강남의 李錡(이기) 등은 모두 당나라 정부에 반기를 든 적이 있었다. 德宗 초엽, 환때 조운이 단절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횡포한 절도사의 간섭과 파괴로 因하여서이다. 興元 元年(784년), 당나라 정부에서는 汴州를 收復하여 운하 수송선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貞元 元年(785년)으로부터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운하를 통제하고자 운하의 요충지마다 많은 병사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운하를 수비하는 傲慢한 장군과 병사들은 貞元 8년부터 15년까지 汴州 일대에서 다섯차례나 漕運 물자를 약탈하여 조운에 대한 위협은 끊이지 아니하였다.

당나라 정부에서는 먼저 운하 연안의 변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 당시 李泌(이

필)이 말하기를 “양자강과 회하의 조운은 甬橋(용교, 또한 符離橋, 永濟橋라고도 함)를 요충지로 하였는데 만약 서주를 잃으면 양자강과 회하 지역을 잃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서라도 서주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수송선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한다면 양자강과 회하유역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元和 4년(809년) 원래의 通濟渠의 요충지에 宿州를 세우고 운하 요충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元和郡縣圖志』에서 말하기를 “숙주는 본래 서주의 符離縣이었는데, 원화 4년(809년) 그 곳이 남으로는 汴河와 연결되고, 또한 甬橋를 끼고 있어 운하의 요충지이고 중요한 변방요새였다. 또한 蕪縣(점현)의 북쪽은 서주에 속하고, 지역이 넓어 符離, 점현 및 泗州의 虹縣(홍현)을 떼내어 숙주를 설치하였다.”

숙주를 설치한 것으로부터도 당나라 정부가 운하에 대하여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방에는 변진이 할거하여 당나라 정부에서는 부득이 운하의 수송선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것은 운하의 수송선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양자강과 회하 유역의 부유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숙주의 설치로 하여 서주는 남방의 경제 중심지를 보호하는 병풍으로 되었고 또한 서주는 점차 강대한 변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양자강과 회하 유역에 변진이 분분히 할거하고 운하의 수송선이 단절되어 당나라가 동남지역의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게 되자 당나라의 경제도 더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

(三) 武藝를 崇尚하는 풍속

서주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었을 뿐만아니라 자고로 그 곳의 주민들은 무예를 숭상하였다. 당 懿宗(의종)이 말하기를 “서주의 풍속은 무예를 숭상하고 병사들이 용맹하였다……”라고 하였고, 송나라 소동파도 『徐州上黃帝書』에서 말하기를 “(서주)지

5) 『唐要』, V87, 『轉運鹽鐵總叙』

역의 사람들은 壯年이 되면 모두 담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였다.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목에 찢대를 세우고 강도로 되는 사람도 허다하였다. 한 고조(劉邦)는 沛縣사람이요, 항우는 宿遷 사람이며, 劉裕도 彭城 사람이고 朱全忠은 碭山 사람인데 이들은 모두 서주 주위 수백리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고 용맹하였는데, 그것이 풍속으로 되었다. 魏나라 황제가 30만 대군으로 彭城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王智興이 보잘 것 없는 병력을 가지고 서주를 점거하고 있었으나 朝廷에서 공략하지 못한 것은 지형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사병들이 용맹하였기 때문이다.”

당나라때에 서주의 병사들은 당나라 朝廷을 위하여 반란을 평정하고 漕運의 원활한 수송을 확보하여 당나라 정부의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예컨대 李顯이 武寧節度使로 있을 때, 靑鄆(청운)을 토벌하였는데 “공격하는 성마다 함락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번번히 승전가를 울리었다.” 그리하여 “토벌하는 군사들중 서주의 군사가 제일이었다.”⁶⁾

덕종 15년 9월 “徐州와 泗州의 군대를 파견하여 吳少誠을 토벌하게 하였고”⁷⁾, 憲宗 원화 3년, 치청 절도사 李師道를 토벌하는 전투에서 무녕군을 주력으로 하여 “평로 절도사의 군대와 11차례 싸웠는데 모두 승전하였으며”, 원화 10년(815년), 회서의 반란 절도사 吳元濟를 토벌하였고, 14년(819년)에는 적군을 2만여명이나 사살하였다.⁸⁾

또한 다른 한 방면으로는 서주의 군졸들은 교만하여 수시로 통수(장군)를 내쫓았는데, 서주의 兵亂은 역사가 유구하다.

代宗 大歷 9년 2월 서주의 병란으로 刺史 梁乘(양승)을 몰아 냈다.⁹⁾

張建封(장건봉)이 죽자 “...병사들은 분노하여 5, 6천명이 무기고를 부시고 창과 칼을 꺼내 衛城을 맴돌았다. ... 泗州의 刺史 張伾(장비)가 병사를 거느리고 甬橋를 공격하여 서주의 병사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대패하여 돌아 왔다.”¹⁰⁾

“초기에 王智興(왕지흥)이 서주를 점령하고 용맹한 군사 2천명을 모집하여 銀刀, 雕旗(조기), 門槍(문창), 挾馬(협마)등 군을 두었고, 牙城(아성)에 주둔하였다. 후에 점차 교만하여졌으나 절도사도 어찌하지 못하였다. 田牟(전모)가 서주를 지킬 때에는 매일 병사들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등을 어루만지며 병사들을 다독거렸지만 사병들은 이것저것 요구하며 특하면 장군을 쫓을 謀議를 하였다. 壽州의 刺史(자사) 溫璋(온장)이 절도사를 지낼 때, 교만한 병사들은 온장이 殘酷하여 처음에는 매우 겁을 내 하였으나 온장이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온장을 내쫓았다. ... 朝廷에서는 王式에게 두 번진의 병사를 거느리게 하고 ... 서주의 병사 3천명을 죽였다.”

실은 王式이 이 자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많은 자들이 도망을 갔는데, 조정에서 여러 번 공문을 내어 여죄를 묻지 않겠으니 귀순하라 하고 하였으나 이들은 죄가 두려워 산속에 들어가 강도로 되었다.”¹¹⁾ 咸通 8년(868년), 결국은 서주에서 桂林(계림)으로 수비를 가던 병사 5백명(즉 龐勳)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반란이 실패한 후 그중 일부는 또 黃巢(황소)의 起義(반란)에 가담하였다. 때문에 『唐鑒』(당감)에서는 “황소의 무리는 실은 서주의 잔여이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당나라의 통치기반을 뒤흔든 것도 서주의 사병들이었다.

6) 『使院新修石幢記』

7) 『新唐書·德宗記』

8) 『舊唐書·憲宗紀』

9) 『新唐書·代宗紀』

10) 『舊唐書·張建封傳』

11) 『舊唐書·懿宗紀』

二. 장보고의 서주에서의 경력이 從軍으로부터 貿易에로의 전환에 미친 영향

장보고가 서주에서 무녕군 소장으로 있을 때의 구체적인 활동과 서주에서의 경력이 귀국후 그에 미친 영향 및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²⁾ 그의 무녕군에서의 활동 및 신분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一) 무녕군 소장 장보고는 주로 서주에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무녕군 소장으로 있을 때, 학자들은 그의 생활과 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고 보고 있으며, 수시로 무녕군이 관할 한 州와 縣에서 활동하였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때 각 州마다 모두 刺史가 있었고 刺史도 군사를 거느렸다. 서주는 그때 州였으며 또한 무녕군 절도사의 주둔지였고, 무녕군 절도사는 통상적으로 서주 자사를 겸하였다. 그리고 그때의 관할구역을 보면 泗州의 절도사는 張佺(장비)였고, 濠州(호주)의 절도사는 杜兼(두겸)이었으며 文宗때에는 東都 鹽鐵院官 吳季鏜(오계진)도 한때는 宿州(숙주)의 자사를 지낸적이 있다. 장비는 798년 무녕군이 주둔하는 甬橋(용교)를 進攻한 적이 있다. 元和 원년(806년), “다시 호주와 사주를 서주에 예속시켰는데, 서주의 군대는 두 개의 州를 생각밖에 얻고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¹³⁾ 이는 당시 서주의 군대와 자사의 군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주며, 그 관계는 비교적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즉 어떤 때에는 자사의 군대를 절도사가 지휘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이며 심지어는 절도사의 군대와 대항하여

싸울 때도 있었다. 때문에 무녕군 절도사의 군대는 주로 서주에 주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보고가 무녕군 소장으로 任職하고 있는 기간은 다른 곳으로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나간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서주에서 지냈을 것이다.

(二) 무녕군 소장의 階級

장보고는 “본국에서 서주에 와 軍中 小將으로 있었다.”는데 대하여 학자들중 小將은 높여 부르는 칭호이고 실은 牙將을 가르키는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¹⁴⁾

당나라의 군사 편제중 直屬 군대에는 小將이 있었다. 예컨대 당나라 趙麟(조린)의 『因話錄』에 기록하기를 “어느 神策 小將이 말을 타고 피하지 않아 公(柳公綽, 유공작)이 거리에서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라고 하였는바, 神策 小將이 다만 거리에서 높은 벼슬의 公의 행차를 보고도 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리에서 곤장을 쳐 죽인 것을 보면 그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중앙의 직속군대에 小將이라는 편제가 있었다하여 번진에도 반드시 그 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당나라 번진의 군사편제에 대하여는 嚴耕望(엄경망), 張國剛(장국강) 두 사람이 『당나라 번진 연구』 중에서 한 고증에 의하면 소장이라는 직제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나라 번진은 군사, 토지, 인구, 조세 등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군사편제의 설치도 대단히 혼란하였는바, 무녕군을 예로 들 것 같으면 각 번진과 같은 군사편제를 둔 외에 별도로:

裨將(비장) [安進達(안진달), 唐重靖(당중정)은 憲宗 시기 무녕군의 비장이었다.¹⁵⁾

偏將(편장)[張雄, 丁從實(정종실), 馮宏鐸(풍굉탁) 등은 모두 僖宗 光啓 2년 무녕군의 편장이다.¹⁶⁾

將 [李自明, 王昌涉(왕창섭)은 현종 시기 무녕군

12)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장보고 연구소, 한국항해학회, 『장보고의 선박, 무역과 항해술』 학술강연회 초록집, 참조.

13) 『舊唐書·張健封傳』

14) 李寶民, 閔德權, 『關於張保皋早期任職唐代武寧軍“小將”考』, 장보고 연구, 제1집.

15) 『新唐書·王紹傳』

16) 『新唐書』

의 將이었다.¹⁷⁾

牙將(아장) [王智興, 張嚴(장엄) 등.¹⁸⁾

小將 [장보고, 정년.¹⁹⁾

牙校(아교) [石雄(석웅).²⁰⁾ 등의 직제를 두었다.

이상과 같은 고찰로부터 볼 때, 당나라 무녕군의 군사편제와 기타 변진과 大同小異하였다. 변진의 하급 군관의 편제와 명칭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예컨대 牙兵으로는 안록산의 曳落河(에락하), 田承嗣(전승사)의 外宅男, 李錡(이기)의 番落健兒(번락건아)등으로 相異하게 호칭이 붙었다.

지방 변진중에 무녕군에 소장인 장보고, 정년이 있는 외에 咸通때에 嶺南에 小將 劉謙(유겸)이 있었는데 그를 “牙校” 혹은 “小校”라고 부른 것도 있다.²¹⁾ 그리고 『西陽雜俎』(유양잡저)에는 “淮西의 군대가 전투 할 때에 劉巧(巧에는 삼수변이 있음)를 군중 소장으로 삼았는데 군중의 頭目(통수?)은 그를 매우 중시하였다. 매번 매복을 하거나 적장을 사로잡을 때에는 劉巧(유개)가 있었는데 전후하여 敵將을 많이 잡았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 변진중의 小將에 대한 기록은 세 곳 4인이 있다. 『법친문집』, 『北夢瑣言』(북몽쇄언), 『西陽雜俎』의 기록으로부터 보면 첫째는 변진 소장의 연령은 모두 높지 아니하였는바, 그중 장보고의 연령이 조금 많기는 하였지만 역시 30을 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소장은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장보고는 “본국에서나 서주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고”, 정년은 “또한 물재주가 좋았는데 50리를 헤엄쳐도 문채없었으며 그 용맹은 장보고도 따르지 못하였다.” 유개는 “통수가 매우 중요시 하였고”, 劉謙도 “절도사 韋宙(위주)가 매우 偏愛하였다.” 이러한 것은 소장의 무예나 용맹이 일반 牙將이나 小校와는 비교도 안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보민, 민덕권교수는 杜牧이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고하여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무녕군 소장으로 있었던 정년이 후에 沒落하였는데 칭찬할 여지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무녕군 절도사를 지낸 왕지홍에 대하여도 여러 책에서는 모두 그를 곧바로 아장이라고 부르며 존경이나 칭찬의 서술방법을 쓰지 않고 있는데 소장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史書에서 소장이라는 말을 모두 칭찬의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볼 때, 아직 무녕군에 군중 소장이라는 직제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장이라는 직제가 당시의 일부 변진중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

(三) 장보고에 대한 영향

장보고는 “전투에 능하고 槍을 잘 다루었”으며, 그 “본국에서나 서주에서 당할 자가 없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 온 원인이 생계때문이었다면 그의 무예로는 신라에서도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무엇 때문에 당나라로 왔고, 또 무엇 때문에 무녕군에 가입하였는가는 풀수 없는 의문이다. 8-9세기에 산동반도에서 활동한 평로치청절도사 李正己가족은 이정기를 포함하여 그의 父兄인 李洙(이유), 아들인 李納(이납), 손자인 李師古(이사고)와 李師道(이사도)는 山東을 수십년동안 통제하며 산동연해지역을 손안에 넣었는데 그 가족은 고려사람이었다. 淄靑(절도사) 軍中의 많은 군관들은 僑民들이 담당하였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장보고가 당나라에 올 때에 먼저 登州 附近에서 上陸하였을 것인데, 이렇듯 귀중한 인재에 대하여 평로치청절도사도 상당히 歡待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무예를 발휘하려면 이씨 가족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적합하였을 것인데 사실상 장보고는 그러하

17) 白居易, 『制勅』(제칙)

18) 『唐書』, 『舊五代史』.

19) 『新唐書』

20) 『新唐書』

21) 孫光憲, 『北夢瑣言』; 사마광, 『자치통감』

지 아니하였다. 장보고가 가까운 산둥반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서주를 택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고용군으로서의 무녕군 소장이 받는 임금은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장보고와 동시대 사람인 정년은 무예가 뛰어나고 “또한 50리를 헤엄칠 수 있었고, 무예도 장보고를 능가하였으나” “장보고가 귀국하여 貴하게 되었을 때 정년을 실직하여 연수현에서 빈곤하게 지냈다.” 정년이 “빈곤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오히려 싸우다 죽는 것보다 못하고 하물며 고향에서 죽는 데야”라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볼 때, 정년이 무녕군에서 임관한 기간은 비교적 길며, 그때 장보고는 이미 귀국하여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시간은 828년 좌우였을 것이다. 무녕군 소장으로 있던 정년이 무녕군에서 20여년간 임직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아주 빈곤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것은 그(소장)의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말하여 줄 뿐만 아니라 봉급도 아주 적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假定을 하여 볼 수 있다. 즉 장보고가 당나라에 올 때는 이미 30에 가까운 나이로서 정년과 다른 것은 그는 자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개변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당나라를 理解하며, 특히 항해무역에 관한 상황을 理解하자면 반드시 지리위치가 적합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선택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등주나 萊州가 그가 당나라에 입국한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연수현과 초주로 왔다. 일정한 시간의 理解를 통하여 무녕군의 지리위치와 제반 사정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무녕군에 입대하여 임관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從軍한 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고 항해무역에 종사한 것도 다만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생각된다.

장보고가 무녕군에서의 군대생활, 특히 “사병은 裨將(하급 장교)를 우습게 알고, 裨將(비장)은 元帥

를 우습게 아는” 이러한 상급자에 대항하는 풍기의 영향으로 그가 귀국 후,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왕실의 권력투쟁에 개입하는데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풍부한 작전경험, 특히 번진의 경제활동은 그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연수현 및 초주의 신라교민은 그에게 항해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啓示(아이디어)를 준 것이 아닌가 한다.

당나라의 상업무역은 나날이 발전하였는데, 번진 할거국면을 맞아 이러한 절도사들의 야심은 극도로 팽창하였고, 그들은 상인들과 합작하거나 더 나아가 한패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軍需 명의로 재부를 축적하였다. “각 절도사나 觀察使들은 廣陵(광릉)을 남북물자교류의 큰 시장으로 활용하여 여기에서 많은 貨物이 集散되었다. 대부분이 軍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은 私財를 축적하기 위하여 서이다.”²²⁾ 예컨대 왕지홍은 泗州에서 祭壇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승려로 신분변경시키는 것으로 큰 橫財를 하였다.²³⁾

더욱 노골적인 것은 직접 朝廷에 대항하고 운하를 통하여 수송되는 물자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貞元 8년에서 15년 사이에 운하를 지키는 병사들이 汴州부근에서 5차례나 운하의 수송물자를 약탈하였었다.

781년, 치청절도사 이정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군사를 운하의 요충지에 파견하여 “甬橋, 渦口(와구), 江淮(강회)를 지키자 秦(장안)으로 들어가는 선박 2천여석이 渦口 밑에 정박하고 감이 지나지 못하였다.”²⁴⁾ 798년에는 張愔(장음)이 甬橋를 점령하고 있어 조정에서는 泗州 刺史 張伋(장비)로 하여금 용교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장비는 대패하고 돌아갔다. 이는 장음이 조운선박의 통행을 금지하였거나 또는 조운선박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장비에게 甬橋를 공격하게 하였을 것이다.

822년에는 무녕군의 왕지홍이 반란을 일으켜 甬橋부근의 汴水에 정박하여 있는 公私 상선에 적재

22) 『唐會要』

23) 『舊唐書·李德裕傳』

24) 『舊唐書·張萬福傳』

한 鹽鐵院의 돈과 조정으로 실어 가는 물자를 대규모로 약탈하였는데, 10중 7, 8을 약탈하였다.

당나라 中興의 공신 李光弼(이광필)도 환관인 程元振(정원진)과 不和하여 서주에서 “양자강과 회하 유역의 조세를 걷어 自給하려 하였다.”²⁵⁾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장보고는 혹은 직접 보거나 또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신라의 상선이 등주에서 접안한 후, 압신라발해 양변사의 부하가 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公印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등주는 낙양과 장안과는 육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육로운송도 아주 어려웠다. 당나라에서는 장안을 중심으로 하여 육로운송망이 형성되었는데 주요 幹線은 9갈래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장안에서 東都인 낙양을 거쳐 汴州에서 동북으로 潁州에 이르거나, 또는 변주에서 동으로 幽州에 이르는 교통로선이었다. 만약 이 육로교통을 이용하여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자면 인력이나 畜力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척 많은 힘이 들었을 것이다. 설사 潁州에 가서 길을 바꾼다고 하여도 도중에 번진이 할거하여 있어 길흉을 예견할 수 없다. 수나라 때, 고려를 진공할 때에도 운송하는 군량은 도중에 민부들이 먹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던 것도 이러한 육로운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등주에서 바다를 타고 남하하여 연수현에 이른 후 다시 회하를 이용하여 운하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였을 것이다. 신라의 “교관선”이 항해에 적합하여 운하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고, 연수현이나 초주에서 仲介하였으나, 신라의 각종 상품에 대한 揚州나 楚州의 소비는 장안과 낙양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었다. 이러한 곳으로 상품을 운송하자면 운하에도 內河 운송에 적합한 신라인의 상선이 있었을 것이다. 설사 없었다하더라도 신라인은 揚州 등지에서 이러한 상선을 구매하여서라도 사용했을 것이다.

적산 법화원은 압신라발해양변사의 주둔지와 가

까워 외부의 간섭이 적었지만 기타 지역의 상인들은 필시 많은 간섭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지방관 리들은 심지어 재물을 탐내어 상인을 살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예컨대 李邕(이읍)이 海州 刺史로 있을 때, 경내에 상선 10여척이 왔는데 “보물이 수백만”이었다. 이읍은 “밤에 그 물건을 모두 빼앗고 배는 침몰시켰다.”²⁶⁾ 당나라 때에 해주 일대에 동남아 상선이 정박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신라와 일본의 상선이 정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와의 무역을 보면 “수출하는 물산이 기타 여러 나라와 비해서 제일 많았다.”²⁷⁾ 그리고 당나라와 일본간의 일부 무역도 신라의 상선이나 상인이 맡았던 것과 해주 東海縣 宿城村에 신라 교민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10여척의 선박은 신라의 상선이라고 추정할 만 하다. 이러한 이읍의 약탈사건은 번진이 할거하여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일정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에 적법한 항해무역도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사건은 서주에 다년간 머무른 장보고가 듣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보고가 당나라에 와서 무녕군의 소장으로 있는 것은 계획적이었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무녕군에 있는 기간에 그는 자기의 政治인 포부와 경제관계에 대하여, 등주, 연수현, 초주와 운하의 신라 상선과 상품교역, 신라와 당나라간의 무역, 사무역과 이에 따른 위험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용맹과 “본국이나 서주에서 당할 자가 없는 무예” 및 당나라의 연해, 하천, 번진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당나라에 온 신라상선과 상인에 대하여 어떠한 신용이나 안전방면의 담보를 제공하고, 또한 나아가 이러한 무역에 대하여 독점하였을 것이다.

25) 『舊唐書·李光弼傳』

26) 『太平廣記·李邕』

27) 『唐會要·新羅』

장보고는 귀국한 후에 청해진을 기지로 하여 해상 封疆大吏(봉강대리)의 신분으로 신라의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張大使(장대사)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것이 모종 의미에서는 바로 당나라에 들어가는 통행증이었다.

